

두개의 계약 신학;

O.P.Robertson의 'The Christ of the Covenants'와

T.E.McComiskey의 'The Covenants of Promise'의 비교

길 성 남

(Th.M.I., 신약신학 전공)

이 글은 계약신학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서평, 비교 분석한 것이다. 한 권은 O.P.Robertson의 *The Christ of the Covenants*이며 다른 한 권은 T.E.McComiskey의 *The Covenants of Promise*이다. 두 저자는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했으며 보수적·개혁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 저자는 계약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계약에 대한 전술과 해석은 아주 다르다. 이 글에서 먼저 두 사람의 저서를 차례로 소개, 서평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입장과 해석을 서로 비교, 평가함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계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서평에 사용된 책은 총신대학원의 김의원 교수가 번역한것으로 '계약신학과 그리스도'와 '계약신학과 약속'이다. 두 권 모두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출간되었다.

1. O.P.Robertson의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1) 저자 소개와 주제

저자는 Belhaven College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했으며 Virginia의 Uni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Th.M과 Ph.D를 취득했다. 그 후에 그는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the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교수를 역임했다.

본서는 저자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계약의 의미와 신구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계약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신구약 관계가 지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확실한 기초를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런 관심하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기초

를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이런 관심하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계약들을 주석적이며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본서는 모두 3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하나님의 계약의 정의를 내리며, 계약의 범위를 확정짓는다. 2, 3부에서는 계약을 창조의 계약과 구속의 계약으로 나누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계약 등을 구속계약으로 분류하여 취급한다. 저자는 본 서에서 계약이야말로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속사의 중심으로 보며, 따라서 계약을 통하여 신구약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2) 내용과 핵심적 문제

저자는 계약을 주권적으로 집행되는 피로 맺어진 약정(bond in blood sovereignly administered)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서 각 단계의 계약이 제시되고, 그 계약의 특성에 의해서 위에서 언급된 계약의 정의가 입증된다. 계약은 창조시에 비로소 인간과 하나님사이에 체결되며 그 범위가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이른다. 계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제에 의해서 통일성을 가지며 각 시대의 전전에 따라서 그 시대에 맞는 특성과 강조점을 지니는데 거기서 계약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계약은 인간의 타락을 기준으로 해서 창조계약과 구속계약으로 분류된다. 창조계약은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최초의 약정이다. 이 약정을 인간이 스스로 파기하는데서 구속의 계약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간과 체결하신 구속의 계약을 통해서 창조계약에서 이행하지 않은 축복들을 실현하시려 한다. 구속의 계약에는 아담, 노아, 모세, 다윗, 새계약 등의 계약이 포함되며, 연대순으로 배열된 이 계약은 구속사의 전전 단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각각의 구속계약은 나름의 특성을 지닌다. 아담의 계약은 범죄 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시작의 계약으로 분류된다. 노아의 계약은 보존의 계약으로서 창조계약의 개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우주를 보존하시리라는 약속이다. 아브라함의 계약은 약속의 계약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맺으신 것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피로써 확증하는 것이다. 이 계약에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의 서약이 나타나며 할례가 계약의 인증으로 수반된다. 모세의 계약은 보다 진전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요약된 형태로 외형적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의 계약이다. 이 계약은 하나님의 뜻의 점진적인 전개와 관련해서 이전의 계약보다 진전된 것이며 그 이후의 계약과 비교해서는 덜 진전된 것이다. 다음 단계는 다윗 계약이다. 이 계약에서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최고의 실현단

계를 맞게 된다. 물론 그것은 구약에 국한된 경우이다. 다윗계약은 하나님의 왕권의 예표론적인 표현으로서 인간의 왕권을 세운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다윗의 계약은 왕국의 계약이며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 이 계약은 다윗계약에 관한 약속과 예루살렘 왕권에 관한 두 가지 약속을 중심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새계약은 역사를 통해 계약적 약속의 다양한 흐름으로 한데 모으는 독특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것은 완성의 계약이다. 새 계약하에서 계약의 완성적 실현은 모든 메시야 약속들의 성취자로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새 계약하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와 교제의 축복을 경험한다.

3) 평가

이상에서 제시된 각 시대의 계약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자신과 결속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임마누엘의 원리에 의해서 통일성을 지닌다. 동시에 각 단계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의해서 다양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시대를 일관하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궁극적으로 합치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자는 계약이라는 성경적 범주를 통해서 계시사의 점진적 성격과 유기적 통일성을 훌륭하게 제시하였다. 동시에 신구약의 통일성을 입증해 보였다.

특히 저자는 아담의 타락 후에 세워진 구속계약을 중요시 함으로서 계약을 구속의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따라서 구속의 역사가 계약의 역사이며 계약의 역사가 곧 구속의 역사인 것이다. 이러한 계약신학의 구속사적 성격은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나타난다. 즉 계약신학은 구속사적 해석을 강조하나 세대주의는 세속적·비구원적 차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계약을 하나님의 주권적 차원과 피의 요소라는 점에서 정의하고, 그것을 성경의 계약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데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

특히 아담이 범죄한 후에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의 선고를 계약으로 보고, 그것을 구속계약의 시작으로 간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성경 본문에는 계약이라는 용어도 나타나지 않으며 피흘림의 행위나, 저주의 경고도 없다. 다만 범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의 선고가 있을 뿐이다. 창세기 3:15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지만 이것을 구속의 계약으로까지 본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간주된다. 만일 여기서 피흘림이라는 계약의 요소를 굳이 찾는다면 3:21의 가죽옷에 관한 말씀인데, Robertson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는 여기 시작의 계약뿐 아니라 다른 계약에서도 계약의 '피흘림'의 요소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시킨다. 아브라함과의 계약 체결시에 하나님은 저주를 나타낸다. 저자는 여기서 예수의 죽음의 예표를 찾아낸다. 즉 예수의 죽음이 계약의 파기로 인해 비롯된 계약적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자가 제시한 정의와 맞지 않는다. 계약은 주권적으로 집행되는 피로 맺어진 약정이므로 이 정의에 따르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자신이 계약을 수행하지 않은 결과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계약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의해 체결되고 수행될 뿐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이 순종해야 할 중요한 규정과 조건이 따르기도 한다. 또한 인간편에서 하나님께 체결하는 계약도 있는 것이다(시도기야 임금의 경우). 따라서 Robertson의 계약 정의는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은 출애굽기 24:8절의 언약의 피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과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 계약에 대한 지나친 기독론적 해석과 그릇된 모형론적 해석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죽음을 정당하게 계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2. T.E.McComiskey의 계약신학과 약속

1) 저자와 주제 소개

T.E. McComiskey는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Th. M.을, Brandeis University에서 ph.D를 취득했다. 그리고 지금은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구약과 근동언어를 가르치고 있다.

본서는 모두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서의 목적은 구속사에 나타난 계약 구조의 신학적 중요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또한 중심된 주제는 중요한 구속계약들이 이중구조적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이중계약은 약속계약과 집행적 계약이다. 약속계약이 담고 있는 요소들이 집행적 계약이라는 여러 계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저자는 본서에서 약속과 계약, 약속의 계약과 집행적 계약의 신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취급한다.

2) 본서의 내용과 핵심문제

저자는 성경의 중요한 계약들의 구조를 이중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을 약

속의 계약과 집행적 계약으로 나눈다. 약속의 계약은 아브라함 및 그의 후손과 맺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 또는 완전성을 상실하지 않는 영원한 계약이다. 저자는 이 약속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시간대를 다루는 신학적 연속성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 약속의 계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규정이 없으며 오직 주어진 약속에 대한 인간의 믿음만이 요구된다. 반면에 집행적 계약은 약속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이 따른다. 또한 그것이 지배하는 섭리기간들에 적합한 용어로 약속의 요소들을 설명해 준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순종은 약속에서 주어진 기업에의 참여에 필요한 것이다. 저자는 약속의 계약이 갖는 일차적인 기능이 기업의 부여에 있으며 집행적 계약은 기업의 유지를 위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두 계약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업의 부여와 기업의 계속적인 관장을 위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약속에 의해서 제공되었고 그것의 계속적인 향유는 순종에 의해서 보장된다.

저자는 약속의 계약이 아브라함의 계약과 다윗의 계약에서 진술되고 있다고 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땅과 후손을 중심으로 한 약속을 주신다.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수행하신다. 여기에는 인간의 순종의 측면이 없다. 인간의 믿음만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는 베리트의 양식으로서 그 약속을 재진술하며 보증하셨다. 따라서 이것은 약속의 계약이다. 이런 양식은 다윗의 계약에서도 발견된다. 실제로 다윗의 계약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반복이다. 이 계약에도 아무런 조건 규정이 없다. 이들 약속의 계약의 일차적인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업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수행된다.

할례의 계약, 모세의 계약, 새 계약 등은 순종의 내용을 관장하는 기능을 가진 집행적 계약이다. 할례와 모세계약에서의 율법은 백성이 순종해야하는 규정을 진술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촉진시켜, 백성이 약속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즉 할례나 율법이 약속으로 부여 받은 기업을 위해서 백성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백성이 그 규정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기업에서 끊어지게 된다. 또한 아브라함 계약의 생신이자 확장인 새 계약도 순종이라는 반응을 관장하는 계약이다. 그것은 율법을 마음에 두게 하는 일과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시행된다.

이상의 각 집행적 계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땅과 후손이라는

기업의 약속은 각 시대에 따라서 생신, 또는 확장되어 가면서 전체 계약의 유기적 통일성과 연속성을 성취한다.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논증을 아브라함의 계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계약을 조망한다. 그것은 그가 아담의 계약을 약속의 계약이 아니라 순종과 추방(죽음)을 전제로 세워진 관계로, 즉 하나님의 집행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저자는 약속의 계약을 창조시로부터가 아니라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성자 사이의 베리트, 즉 은혜의 계약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우리는 여기서 저자가 베리트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약속의 계약과 집행적 계약으로 나누고 그 결과적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평가

본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계약을 취급하는 데서 저자가 가진 진지한 자세이다. 그는 성경의 표현과 양식에 충실히 하려는 열정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그것은 베리트를 정의하는 데서 보여진다. 베리트는 이중적인 것으로 약속의 계약과 집행적 계약으로 대별된다는 그의 입장은 성경의 진술에 성실한 그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에게 있어서 베리트는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뿐 아니라 인간편의 의무와 순종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계약적 순종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부각시킨다. 이러한 논증을 위해서 저자는 본서 전체에서 계약의 이중적 측면인 약속과 집행을 적절하게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상의 베리트의 이중적 개념을 각 시대의 계약에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시킴으로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첫째는 아담의 계약(또는 약속)을 계약이 아닌 집행으로 분류하여 배제한 채 아브라함의 계약을 전체 구속사의 중심 계약으로 강조한 점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관점에서 모든 계약이 조망되고 해석됨으로서 아브라함 이전의 계약이 무시되고, 구속사의 과정에 공백이 생겨난다. 또한 그 이후의 계약의 역사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역사일 뿐이다. 이 경우에 계약의 역사는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땅과 후손을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부여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McComiskey가 창세기 3:15의 여자의 후손이나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을 개인적 존재보다는 집합적 개념으로 파악해서 후손의 약속과 관련시킨데서도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저자에게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흘림이 그다지 강조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다윗의 계약을 구속사의 진전과정의 하나이기 보다는 아브라함 약속의 재진술 정도로 보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것 역시 저자가 베리트의 이중

적 개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시킨데서 기인한다. 다윗의 계약을 계약 역사의 진전단계의 중요한 요소라기 보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재진술로서, 약속의 계약으로 볼 때 구속사의 유기적 연속성에 단절을 초래한다. 다윗의 계약은 구속사의 중요한 진전단계로서 이전의 계약에서 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보다 명백하게, 그리고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 경우이다. 따라서 이 계약에 아무런 조건의 규정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계약과 같이 약속의 계약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저자가 계약을 구속사 이해의 열쇠로 보기는 했으나, 하나님의 구속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보다는 기업의 약속에 대한 성취라는 관점에서 계약을 취급했다는 점과 바로 그 점이 계약신학의 구속적 성격을 회복시키는 잘못을 범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3. 두 개의 계약신학의 비교

두 사람 모두 구속사에서 계약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특히 계약적 어프로우치를 통해서 신구약의 통일성을 밝히고, 구속사의 점진적인 흐름을 제시한 데서 그들의 공헌이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이 계약에 대한 정의에서 차이를 보인 결과 두 계약 신학의 성격에 큰 차이가 생겼다.

Robertson은 계약의 주권적 성격과 피의 요소를 강조하며 계약의 단일 개념을 제시한다. 이 계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간의 약점이다. 이에 따라서 Robertson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과 예수의 피흘림을 강조함으로서 구속적 성격을 계약에 부여한다. 반면에 McComiskey는 베리트를 이중개념과 구조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과 인간의 순종의 차원을 동시에 강조하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이에 따라서 McComiskey에게서는 기업에의 참여를 위한 인간의 순종이 보다 강조된다.

이상의 차이점은 베리트의 정의에 따라 계약을 규정하고 취급하는 데서 혈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Robertson은 타락 후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를 하나의 계약으로 이해하고, 그 계약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그의 계약신학에서는 범죄한 인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계약의 역사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제시된다. 반면에 McComiskey는 자신의 정의에 따라서 아담의 계약을 집행으로 보아 배제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약역사의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Robertson은 인간의 구속을 계약의 중심으로 보았으나 McComiskey는 기업부여의 성취를 그 중심으로 보았다. 필연적으로 McComiskey의 계약신학은 구속사적 성격을 잃어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Robertson의 베리트 정의가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너무 좁게, 그리고 피흘림의 요소를 지나치게 일반화 했다. 그래서 모든 계약에서 피흘림의 요소를 찾아 내려고 애를 썼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가설적 정의와 전제를 가지고 성경의 계약을 해석하려고 애썼다는 점이 두 사람의 공헌이나 특성인 동시에 약점으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 베리트에 대한 정의가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입각해서 다시 내려질 필요가 있다.

참된 설교란 무엇인가?

Klaas Runia

번역 : 김세현

우리들은 오늘날 설교가 여러 방면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 사회 과학자들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그리고 심지어 신학자들 모두 비평적인 일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분야는 그 자체의 비평양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 비평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 모두는 현대설교에 무엇인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설교의 모든 현상과 현대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것을 제안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약간의 의문은 교회는 모든 설교를 반드시 포기해야만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하며, 전달의 양식은 더 적절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단지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회 봉사에 여전히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불만족인 것이다. 교회는 그 말씀이 과거에 선포되어 였던 것 보다 가장 흥미로운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듣는 사람은 —Gerhard Ebeling의 표현을 사용하자면—“제도적으로 인정된 단조로움”(institutionally asurred platitudes)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 책명 : THE SERMON UNDER ATTACK(도전받는 설교) 전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2장

◎WHAT REALLY IS PRECHING?(pp. 18-36)을 완역한 것이다. 여기 번역한 제2장이 전체의 핵심 부분이기에 이 부분을 소개 하자 한 것이다. 참고로 각 장의 제목을 기록해 보면 *제 1 장 : CONTEMPORARY CRITICISMS

* 제 3 장 : PREACHING AND THE BIBLE

* 제 4 장 : PREACHING AND THE SITUATION OF THE LISTENER

* 제 5 장 : RELEVANT PREACHING

*이 책의 출판 배경을 소개 한다면...

먼저 저자는 칼 바르트의 연구 대가이며, 멀 카우웨 아래에서 수학하였다.

1980년에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Moore Theological College의 학장과 교수 회의의 초청을 받아 Moore College의 Annual Lectures을 하였다.

저자도 1956-1971년까지 호주의 Victoria, Geelong에서 조직 신학 교수를 지냈다.

이런 이유로 Moore Theological College의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였던 것이다.